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국방비 증액, 세계 최강 미군의 재도약 계기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지난 8년간 국방예산이 22%나 삭감되어 장병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봉급은 더 적게 받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규모의 예산 삭감은 훈련, 현대화 계획, 준비태세 등을 어렵게 하였으며 미군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금년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ty Act(NDAA)]은 2018년도 국방비를 10%나 과격적으로 증액함으로써 국방예산 삭감 추세를 바로잡았다. NDAA는 국방성이 관료주의에 경향에 의한 획득절차를 개혁하고 경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획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봉급 2.4% 인상과 세계적인 위협에 상응하도록 병력수를 증가시켰다.

금년도 NDAA는 신형 탱크와 부족한 항공기 댓수를 보충하고, ISR(정보, 감시 및 정찰)능력 및 증강된 전자전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강한 부대 재건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원의 군사위원회 의장 톰베리(Thornberry)와 위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 Fox New(2017.7.13)

2020년, 인도 경제가 중국을 부분적으로 추월



인도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중국에 이어 경제 대국으로 부상되고, 2020년부터 일부 분야 중국 추월 전망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37%에 달하는 인구 대국이지만, 두 나라는 항상 경쟁하여 왔다. 중국은 지난 20~30년 동안 제조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으며, 인도가 이제 중국을 따라잡고 있고 오히려 대세는 인도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중국은 도시의 제조업과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그런 식의 성장은 정점을 지나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인도는 지난 30년 동안 5% 대의 성장에 머물다가 2015년부터 경제 대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기준 중국의 국가부채규모는 GDP대비 282%인 반면 인도는 135%에 불과하여 성장 잠재력이 중국보다 높다.

또한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GDP의 21%로 높고 그중에 18%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제조업은 수출 지향적이 아니라 내수 지향적으로 발전되었고, 서비스 부문은 수출 지향적이지만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중국보다 더 많은 직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대하여 우호적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인도는 미국의 경제 및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두 나라 간에 ‘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 같다.

* Devense Government News(2017.7.13)